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순원  
소설가

지금은 어디 계시지도 모르는 용주형께 씁니다. 내가 용주형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대학에 막 입학해서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그때 나는 어느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 입학생이었고, 용주형은 같은 1학년이어도 예비역 북학생으로 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학과가 다르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과목도, 강의실도 달랐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네 시간씩 같이 수업을 받는 군사교육 훈련장에서 처음 용주형을 보았습니다. 1학기 때는 학과가 달라 눈에 잘 띄지 않았고, 2학기가 되었을 때 법학과에 다니는 친구가 방학동안 다음학기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서 학교에 다니는 용주형에 대해

## 청운의 푸른 ‘빛’을 안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좀 숙연한 이야기였는데, 여름 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길어야 45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용주형이 노동판에서도 일당이 가장 높은 험한 일을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어름엔 시멘트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건축현장에서 어깨에 고름이 흐르도록 질통을 메고 다리를 후들거리며 공중 첩판을 오르내리고, 겨울이면 이산저산 농선으로 고압선 첩탑을 세우는 작업현장을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짧은 방학동안 당시 사립대학 등록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국립대학 등록금과 최소한의 기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자 용주형이 거인처럼 우러러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음대로 따르며 꽤 가깝게 지냈고, 졸업 후엔 서로 다른 길로 가 소식도 끊기게 되었지만 그 시절 고학생의 모습이란 그런 것이며 청운의 꿈 역시 그런 거였지요.

푸른색의 구름은 어두운 색의 구름보다 더 높이 떠서, 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위와 벼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젊은 시절 성취하는 학문과 연구의 비유이기도 하지요.

그때 헤어지고 다시 만난 적이 없는 용주형을 오늘 새삼스레 떠올린 건 지금 우리 아들세대의 청년실업과 학자금 대출로 비롯된 청춘의 빛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300만 명쯤 되는 대학생의 절반이 넘는 160만 명이 이런저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 연 20%의 고금리 대출을 빌린 학생도 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춘의 시작부터 빛을 갉을 능력이 바닥난 대학생이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기 시작부터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돈을 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야마나 우선 학생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등록금과 비싼 생활비 때문이겠지요. 저렇게 힘들게 빛을 안고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다음단계로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 아버지세대의 고학

생 용주형 얘기를 한 것은 우리 세대는 스스로 이렇게 마련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세대는 한여름 건축현장인든, 한겨울에 바람 생생 부는 능선에 올라 첩탑작업을 하든 짧은 방학동안 자기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여건이라도 되었지요. 하지만 지금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방학동안 아르바이트 등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길으로 보기에 제법 괜찮아보이는 직장

에 다니는 부모들조차 자녀 학비 마련이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게 현실이 아닌지요. 너무 높아져 버린 등록금 때문에 방학동안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학비를 대출받지 않으면 안 될 학생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릅니다.

우리 아버지세대는 어쩌다 이런 여건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일까요. 집에 학생이 있든, 없든 이런 현실이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은지요.

## 의료칼럼

## 인간의 중심축 허리



전 호철  
광주 우리들병원 대표원장

는 아프지 않는데 걸을 때 아픈 경우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이다. 척추관이란 파이프와 같은 구조물로 척추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곳이다. 어떤 원인으로 이 관이 좁아지면 신경이 눌리는데 이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 부른다. 척추관이 좁아져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가 전체적으로 터질 듯이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 척추관은 일어서면 척추관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안으로 밀고 들어와 척추관이 더욱 좁아져서 통증이 심해진다. 반대로 허리를 굽히거나 앉으면 인대가 팽팽해져서 척추관이 조금 넓어져 통증이 줄어든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서있거나 걷기가 힘들고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대개 이러한 경우는 양쪽 다리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신경공의 협착이다. 신경공이란 신경가지가 좌우로 나가는 작은 구멍을 말한다.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공도 함께 좁아지는 것으로 ‘근외측 디스크’라고도 한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일반적인 디스크보다 심하며 대개 한쪽 다리만 아픈 경우가 많다. 근외측 디스크는 일반적인 디스크 진단 방법으로는 진단하기가 어렵다. 화질이 떨어지는 MRI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고화질 MRI를 촬영하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세밀하게 촬영을 해야 발견될 수 있다.

척추관의 협착이는 신경공의 협착이든 먼저 진단을 해야 하는데 이때 MRI 검사는 필수적이다. 먼저 진단이 되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을 복용하는 ‘약물치료’와 조음파, 온열찜질, 견인치료 등의 ‘물리치료’ 등이 있다. 하지만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보다는 ‘신경차단술’이 훨씬 효과적이다. 신경차단술은 MRI상 확인된 병변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이 치료에 증상이 호전된다.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 남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척추관 협

착증과 신경공 협착 등의 수술적 치료는 주로 미세현미경을 이용해 척추신경관 압박술을 하게 된다. 전신마취가 아닌 척추마취만으로 가능하다. 약 2~3cm 정도 피부를 절개해 수술용 현미경을 보면서 좁아진 척추관이나 신경공을 넓혀주고, 눌린 신경도 풀어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보통 허리 디스크 수술보다 간단하며, 시간도 더 적게 들며 합병증도 더 적다. 수술 후 회복단계에서도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고 허리의 운동역학에 영향이 적어 디스크 수술보다 쉽게 치료가 된다.

어떤 병이든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완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앉아서 생활하면 괜찮으니 ‘서서 걷는 것만 줄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병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단 병원에 오는 것이 뒤집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 어쩌랴 하는 걱정으로 많은 분들이 병원 문턱이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기립동물이며 두 발로 서서 걸어야 한다. 결국 인간의 중심축인 허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 음부즈맨 칼럼

## 광주일보만의 브랜드가 힘이다



조미옥  
빛가람중학교 교사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와 지역 간의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뿐만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누구나 쉽게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유랑민처럼 허공에 두둥실 떠다니는 모바일 속에서 광주일보가 지역 언론의 중심으로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모바일에서 찾을 수 없는 종이 신문만의 존재감 그리고 중앙지와외의 차별성이 광주일보의 브랜드이며 경쟁력이다.

잡다한 나열식 기사나 의도적 홍보성 기사들은 주제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는 상관없는 피상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자기들이 읽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응답진 뒤란에 햇빛이 들어치는 기쁨을 맛 볼 수 있는 정보나 기사 등을 접했을 때 신문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며 독자들은 감동받는다.

그렇다면 광주일보를 수년간 접한 독자라면 타사의 신문에서 볼 수 없는 나름대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광주일보만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기억하며 꼽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피플 & 라이프 지면을 꼼꼼히 지켜본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의 애환과 웃음이 응집되어 있어 인생의 응원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4월1일자에 소개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의미 알아야 진짜 기부’라는 기사는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게 함축된 표현으로 제목을 표현하였으며 일반인이 아닌 학생들을 소개하는 소재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과감함 그리고 기존 편집과 달리 왼쪽과 오른쪽 내용을 바꾸는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을 뿐인데도 사소한 변화가 아침 기쁨을 즐겁게 해주었다.

이렇듯 각각의 독자들 나름대로 광주일보만의 브랜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은 광주일보가 갖는 지력이자 역사성이다. 내용 있는 브랜드 창출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인 셈이다.

일찍이 박지원은 우상전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붓의 힘이라고 역설함으로써 문화의 힘을 강조하였다. 그 중심에는 신문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하나의 예로 최근의 한 기관에서 신문 지면에 게재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정년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입니다.”라는 광고는 충격적이지만큼 신선했다. 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역사교육을 한 단계 뛰어 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광고 한 편으로도 독자들의 생각을 아우르게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문이 가질 수 있는 멋진 마력이 아니겠는가?

예전에는 영재라고 하면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현대에는 기억할 수 있는 지식은 얼마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재라고 함은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인식 패턴도 바뀐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광주일보에서도 스스로의 글레에서 벗어나 지면 구성이나 기사 내용을 감각하게 변화시켜 한 번 보고 또 보고 눈길에 자주 갈 수 있는 창의적인 내용과 편집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더불어 과거는 아쉽고 현재는 불만투성이이며 미래는 두려운 우리 지역의 젊은 청장년 독자들에게도 일차 창출의 기회가 되는 알찬 정보와 함께 향내의 힘을 강조하였의 힘을 강조하였독심 있게 브랜드화해서 지속가능하게 실천하는 광주일보의 모습을 오래도록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社說

## 젊은층의 ‘호남 엑소더스’ 바라만 볼 건가

최근 10년간 호남을 빠져나간 젊은 층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호남 인구의 96%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호남·충청권의 세력 확장도 한 몫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정부 예산 지원 감소에 따른 각종 사업의 축소는 물론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역 성장의 교두보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막을 만한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인구 증대를 위한 광주·전남·전북 상생발전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10년(2003~2012년) 당 타 시·도로 유출된 호남 인구가 31만9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6만8000명(84%)은 수도권으로, 4만8000명(15%)은 충청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호남권 유출 인구 가운데 10~30대가 30만6000명(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는 호남·충

## 주먹구구식 대응이 부른 연이은 학생 자살

광주에서 1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중·고생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여고생 2명이 동반자살하면서 당국이 자살에 방שת기까지 조직해 예방교육 강화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A고 2학년 남학생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숨졌다고 한다. 이 학생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에는 B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가족 장애와 생활고를 비관해 모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광주에서의 학생 자살은 2007년 이후 최근 7년 동안 모두 64명에 달한다. 2007년 11명, 2008년 6명, 2009년 13명, 2010년 5명, 2011년 10명, 2012년 9명, 2013년에는 7명이 목숨을 끊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여고생 2명

## 無等鼓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경기 종료 후 이긴 팀과 진 팀의 모습이 확연히 갈린다. 이긴 팀 선수들은 흥이 나서 서로 께안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승리감을 만끽한다. 반면 진 팀 선수들은 제각각 떨어져서 쓸쓸히 경기장을 빠져 나간다. 승패에 따라 선수들끼리의 신체접촉도 달라지는 것이다.

한데 반대로 바로 그러한 선수들 간의 신체접촉(터치, touch)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2010년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켈트너 교수 팀이 이를 입증했다. 2008~2009 시즌 미 프로농구 참가 팀의 신체접촉을 분석해 보니 하이파이브, 풀헤그, 주먹 마주치기 등 경기에서 동료들끼리 자주 터치한 팀이 개인뿐만 아니라 팀 성적도 좋았다. 자주 터치하면 할수록 팀 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임 교황보다 세게인의 주목을 받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에이즈나 난치병 환자를 어루만지고 키스하는 터치가 많다는 사실이다. 전임자들은 별로 보여주지 못했던 행동들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속담처럼 터치는 건강에도 영향력을 끼친다. 엄마의 터치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간혹 사나 간병인의 터치는 환자의 만족도와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치는 마사지를 통해 가장 분명한 효과를 드러낸다.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좋아하는 마사지는 인간이 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뉴로펩타이드의 분비를 늘리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증 증상을 경감시키는 터치 요법은 암 환자나 노인에게 효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터치는 스포츠, 건강, 이성 교제, 세일즈 등에서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만능 재주꾼이라 하겠다. 하지만 누가 허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도 한다. 사람은 터치를 통해 존경과 경멸, 사랑과 증오, 두려움과 호감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터치는 친밀도를 높이는 강력한 기법이기도 하지만 잘못 쓰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성추행이 될 수도 있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